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01 컬렉션의 세 가지 새로운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 출시

- 1,000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핑크 골드 소재의 완전히 새로운 '시크릿 워치' 디자인
- 메종 워치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인 칼리버 101 탑재
-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쥘세팅 장인 기술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모델

예거 르쿨트르는 특별한 쥘 세팅과 시그니처 칼리버 101 을 결합한 새로운 세 가지 하이 주얼리 워치를 선보입니다. 생기 넘치고 개성 있는 여성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타임피스는 특별한 시계 메커니즘과 하이 주얼리의 결합이 선사하는 메종의 창의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101 시크릿은 약 27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거 르쿨트르가 제작한 칼리버 101 타임피스 중 가장 진귀한 리비에르(rivière)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은 착용자가 원할 때만 다이얼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비밀 메커니즘이 특징입니다.

2020 년에 처음 선보인 101 뱅글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레드 래커 다이얼의 핑크 골드 버전과 사파이어 및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스노우 화이트 래커 다이얼의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1929 년, 그랑 메종은 주얼리 워치에 장착하기 위해 직접 고안하고 개발한 독창적인 형태의 칼리버 101 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계는 소형 사이즈와 바게트 모양으로 제작되는 등 디자이너들에게 미학적 자유를 선사하며 여성 워치메이킹 분야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1g 에 불과한 이 작은 핸드 와인딩 칼리버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로 남아 있으며 예거 르쿨트르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브먼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01 시크릿 - 아르데코 정신이 깃든 새로운 디자인



4 줄의 다이아몬드(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 2 줄 양쪽에 장식된 외부의 클로 세팅 다이아몬드 2 줄로 구성)가 돋보이는 101 시크릿 모델은 손목 주위에 눈부신 빛줄기를 그려내어, 그 안에 숨겨진 타임피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크릿 위치의 전통은 19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녀 모두가 착용했던 포켓 위치는 에나멜과 젤스톤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경첩 커버 케이스로 다이얼을 닫아주어 유리가 긁히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20 세기 초에 여성들이 손목시계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계속 표시되는 시계가 필요없다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시크릿 위치는 주얼리와 시계 디자인을 결합함으로써, 뛰어난 아름다움과 진정한 실용 가치를 지닌 제품을 선보이며 메종의 창조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시크릿(secrets)과 같이 복수로 명명된 이름에는 마법처럼 놀라운 두 가지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다이얼이 착용자가 시간을 보고자 할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다이아몬드 라인 안에 숨겨진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으며 시계를 착용한 여성만이 그 위치를 알 수 있어, 마이크로 메커니즘의 위업을 보여줍니다. 착용자가 숨겨진 '버튼'을 살짝 누르면 브레이슬릿의 작은 부분이 책의 페이지처럼 열리면서 영롱한 마더 오브 펄 다이얼을 통해 시간을 보여줍니다. 착용자가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다이얼이 사라지고, 브레이슬릿은 다시 끝없이 흐르는 강줄기와 같은 형상으로 변신합니다.

두 줄의 바깥쪽 다이아몬드 라인을 위해 젤 세팅 장인들은 클로 세팅을 선택했습니다. 클로 세팅은 골드 표면에 스톤을 고정하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빛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이아몬드를 통과하여 반짝임을 극대화합니다. 더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는 크기에 맞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완벽한 대칭으로 세팅되어 젤 세팅 장인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안쪽 다이아몬드 라인의 그레인 세팅은 더 큰 스톤을 위한 시각적 배경이 되어주며, 시계를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다이얼을 감싼 다이아몬드와 함께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의 기하학적 구조를 강조합니다. 브레이슬릿 옆면도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어 더욱 눈부신 광채를 선사합니다.

총 1,024 개의 다이아몬드(26.75 캐럿)로 이루어진 101 시크릿은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모두 진행된 총 182 시간의 세심한 젤 세팅을 보여줍니다.



101 뱅글 - 두 가지 독특한 재해석을 보여주는 컬러

2020 년 처음 선보인 101 뱅글 디자인을 위해, 예거 르쿨트르 디자이너들은 아르데코와 20 세기 모더니즘의 완만한 곡선과 강렬한 라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약 1,000 개의 진귀한 스톤으로 세팅된 브레이슬릿은 손목에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클래스프가 필요하지 않으며, 숨겨져 있는 독창적인 잠금장치로 간단히 여닫을 수 있습니다.

2023 년 메종은 101 뱅글에 컬러를 도입하여 두 가지 새로운 해석을 선보입니다.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의 섬세한 레드 래커 다이얼은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대담한 대비를 이루며 진귀한 메탈에 따뜻한 톤을 더해줍니다. 디자인의 입체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996 개의 다이아몬드(19.7 캐럿)를 크기에 따라 세팅했으며, 켄 세팅 장인은 그리프 및 그레인 세팅 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켄스톤의 반짝임을 극대화했습니다. 브레이슬릿 옆면도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어 더욱 눈부신 광채를 선사합니다.

101 뱅글에 처음으로 사용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은 크기에 따라 세팅된 브릴리언트 컷 사파이어 라인으로 완만한 곡선 디자인을 더욱 강조하여 손목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스톤의 블루 컬러는 브레이슬릿 옆면에 세팅된 사파이어 한 줄로 극대화되었으며,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 스노우 화이트 래커 다이얼의 차가운 느낌으로 더욱 돋보입니다. 347 개의 사파이어(10.29 캐럿)와 645 개의 다이아몬드(10.99 캐럿)로 구성된 101 뱅글은 총 21.28 캐럿의 진귀한 스톤이 세팅 되었습니다.

독창성과 기술력이 돋보이는 풍부한 유산

창립자의 개척 정신을 이어가는 그랑 메종은 초창기부터 여성용 시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주얼리와 액세서리로도 착용할 수 있는 시계의 놀라운 미적, 기술적 잠재력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사회 발달에 맞춰 패션과 스타일뿐만 아니라 여성성 자체를 정의하는 방식도 변화함에 따라, 매뉴팩처는 기술적 정교함과 독창적인 디자인, 미적 아름다움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성을 위한 시계를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워치메이커들은 정확성과 소형화가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했고, 메종은 1929 년에 칼리버 101 을 개발했습니다. 컴퓨터 지원 설계 및 생산 기술이 등장하기 반세기 전, 이 모델은 소형화의 놀라운



위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로 인정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메커니즘은 재료와 기계 가공 모두에서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그 크기와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버 101의 현재 세대는 부품 98 개(오리지널 모델 78 개), 크기 14mm x 4.8mm, 두께 3.4mm(0.2cm³), 무게 1g 수준의 사양으로 제작됩니다.

모든 칼리버 101은 직접 생산하고 조정해야 하는 초소형 사이즈의 메커니즘 부품 덕분에 모든 제품은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무브먼트를 제작하고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워치메이커 극소수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십여 개의 레퍼런스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칼리버 101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세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에 예거 르쿨트르의 미니어처 워치메이킹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메종의 잼 세팅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줍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와 워치메이커, 주얼러는 기술적 정교함과 창의적인 디자인, 미적 아름다움의 특별한 화합을 선보입니다.

상세 정보

101 시크릿

소재: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케이스 크기: 29.07 x 12.22mm

손목 크기: 160mm

두께: 9.88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1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33 시간

다이얼: 마더오브펠

캐럿: 1,024 개의 다이아몬드(약 26.75 캐럿)

제품 번호: Q2872201

제작: 주문 제작

상세 정보

101 뱅글(핑크 골드)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케이스 크기: 18.35 x 5.98mm

손목 크기: 160mm

두께: 5.97 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1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33 시간

다이얼: 레드 래커

캐럿: 996 개의 다이아몬드(약 19.7 캐럿)

제품 번호: Q2892260

제작: 유니크 피스

상세 정보

101 뱅글(화이트 골드)

소재: 화이트 골드(18K)

케이스 크기: 18.35 x 5.98mm

손목 크기: 160mm

두께: 5.47 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1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33 시간

다이얼: 화이트 래커

캐럿: 347 개의 사파이어(10.29 캐럿), 645 개의 다이아몬드(10.99 캐럿), 총 약 21.28 캐럿

제품 번호: Q2893202

제작: 유니크 피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3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0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